

‘쌍용’의 부활 용틀임…모로코전을 부탁해

(기성용-이청용)

신태용이 러시아전서 얻은 것

기성용 안정적 불 배급·이청용 왕백 활약
클래스 입급…대표팀 든든한 버팀목으로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10월 7일(한국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평가전에서 2-4로 완패했다. 이란~우즈베키스탄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마지막 2연전에서 무득점하며 비진 '신태용호'는 출범 이후 3차례 A매치에서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기다렸다는 듯 엄청난 비난이 쇄도했다. 밀도 끝도 없는 히딩크 광풍에 휘말린 대표팀은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특히 자책골을 2번이나 내준 중앙수비수 김주영(29·허베이 화샤)은 각종 온라인 축구계서판에서 '역적'으로 몰리고 있다.



기성용

이청용

물론 결과는 뼈아프지만 마냥 실망할 필요는 없다. 10월 10일 스위스 빌-비엔에서 모로코와의 평가전이 펼쳐진다. 차기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와의 원정경기는 분명 뼈아프지만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득직한 베테랑들이 합류하면서 대표팀은 한층 목직해졌다.

부상과 부진을 떨쳐낸 '쌍용' 기성용(28·스완지시티)~이청용(29·크리스털 팰리스)은 러시아 원정 평가전에서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다.

후반 18분 그라운드를 밟은 기성용은 여러 차례 날카로운 볼 배급으로 중심을 잡았다. 넓은 시야와 안정된 볼 터치로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신태용호'에서는 첫 출격이다. 여름 휴식이 때 받은 무릎 수술의 후유증은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기성용은 스완지시티 선수단의 풀 트레이닝에 갖 합류해 2군 경기를 약 60분 소화했다.

그래서일까. 경기 도중 스포트를 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다. 볼을 받고 돌아 들어가는 동작도 다소 둔탁했다. 그럼에도 충분히 안정적이었다. '키 맨'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10월 유럽 원정에서) 진짜 경쟁이 시작됐다.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약체는 없다. 가장 낮은 자

세로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진 기성용은 일단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다.

이청용도 명성을 지켰다. 기간 오른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2선 공격수로 뽐 그는 3-4-3 포메이션의 오른쪽 윙백을 맡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전반까지는 공격을 지양하며 낮은 포지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듯 했으나 후반전부터 좀더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했다. 결국 스코어 0-4로 뒤진 후반 막판 날카로운 크로스와 침투 패스로 2개 도움을 만들었다.

신 감독은 다가 모로코전에서 테스트와 실험을 병행한다. 앞서 '소집멤버 전원 출전' 선언을 한 만큼 러시아전은 일부 로테이션이 예고됐다.

그렇지만 둘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한국축구는 '쌍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경남FC '김종부 매직' 3년 만에 클래식 복귀

부산전 승리로 자력 승격 사실상 확정

경남FC가 2018년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자력 승격을 사실상 확정했다. 경남은 10월 8일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 2017 33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리그 선두 경남은 3경기를 남겨둔 현재 21승 7무5패(승점70)로 2위 부산(17승10무6패·승점 61)과의 격차를 승점9로 늘렸다. 경남은 남은 3경기에서 1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올해 K리그 클래식(2부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내년 K리그 클래식에 복귀하게 된다. 남은 경기에서 전패를 당해도 다 득점에서 부산에 무려 15골을 앞서 있어 경남의 클래식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2014년 강등의 아픔을 맛봤던 경남은 챌린지에서 3시즌을 보낸 끝에 1부 리그로 돌아가게 됐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경남이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경남의 전임 사장이 2013년 8월부터 주기적으로 삼판 매수를 시도했던 사실이 2015년에 뒤늦게 밝혀져 팀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과 승점 삭감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로도 구단 수뇌부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흥역을 잃었다. 구단의 예산도 대거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시즌을 앞두고 챌린지 상위권 전력을 아니라는 평가를 들었던 경남은 지난해 부임한 김종부(52) 감독의 지휘 아래 탄탄한 팀워크를 갖추며 반전을 이뤄냈다. 외국인선수 말경을 영입한 덕분에 막강한 득점력을 갖춰 시즌 내내 선두를 질주했다. 득점에 무게를 실은 팀 운영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며 경남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클래식 복귀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선수시절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면서도 스카우트 파동의 피해자로 꽃을 피우지 못했던 김 감독은 지도자 변신 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리그 클래식 스피릿라운드 돌입

우승이냐…강등이냐 이제 5경기에 달렸다

이제 5경기만이 남았다. 8개월의 정규리그 대장정을 마친 'K리그 클래식' K리그 클래식 2017이 본격적인 상·하위 스피릿라운드에 접어들어 치열한 우승과 생존 경쟁에 나선다.

K리그 클래식은 10월 8일 동시에 열린 33라운드를 끝으로 한 주간의 휴식기에 들어갔다. 달콤한 재충전 뒤엔 총 5차례의 스피릿라운드가 12개 팀을 기다린다. 스피릿라운드는 곧 우승과 생존의 싸움이다. 최종 5경기를 통해 우승팀이 결정됨과 동시에 챌린지 강등팀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슷한 순위권 팀들끼리 경기를 벌이는 터라 중요성과 압박감은 배가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선두권이다. 전북 현대의 1위 질주를 막기 위한 2위팀들의 추격이 거셀 전망이다. 전북은 위너리그에서 19승8무6패(승점 65)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최종 33라운드에서 최강희 감독의 200승까지 달성한 터라 기세를 몰아 우승까지 이루겠다는 각오다.

전북을 뒤쫓는 팀은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다. 나란히 승점 59로 2위권을 형성해 선두 경쟁에 나섰다. 두 팀은 지난해 FC서울의 역전 우승을 떠올리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승 경쟁 다음으로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상위 3개 팀까지 주어지는 ACL 직행 티켓은 우승팀이 나 소중한 선물이자. 현재로서는 전북과 제주, 울산이 유리한 위치지만, 승점 53의 수원 삼성과 서울대 티켓을 호시탐탐 노린다. 다만 FA컵 결승과 4강에 올라있는 울산과 수원의 우승 여부에 따라 4위까지 ACL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유다.

상위 스피릿라운드가 부분 꿈을 향한 경쟁이라면, 하위 스피릿라운드는 생존을 향한 혈투다. 스피릿라운드가 모두 끝나면 12위팀이 챌린지로 강등되고, 11위팀은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외너부터 대결을 통해 강등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광주FC가 가장 불리한 위치다. 33라운드 동안 4승(11부18패)에 그쳐 승점 23으로 강등 가능성이 높다. 그 위로는 무려 4개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 탈출을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 8위 대구FC(승점 36)를 비롯해 전남 드래곤즈~상주 상무~인천 유나이티드(이상 승점 33)가 하위권 싸움을 앞두고 있다. K리그 클래식 각 팀의 운명을 가르는 스피릿라운드는 10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고봉준 기자 shutoul@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선 축구국가대표팀이 10월 10일(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엔에서 모로코와 평가전을 갖는다. 7일 러시아전에서 2-4로 완패한 대표팀이 모로코를 상대로 나온 경기력과 결과를 얻지 못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수비진 대폭 물갈이…변형 스리백 실험은 계속

러시아전 후반 같은 공격 전개 기대
뒷문 불안 여전…선수들 투혼 강조

오늘 모로코전 관련 포인트

대표팀은 10월 10일(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엔에서 북아프리카의 다크호스 모로코와 평가전을 펼친다. 사흘 전(10월 7일) 모스크바에서 내린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에 2-4로 완패한 터라 대표팀은 더욱 절박해졌다. 모로코전의 3대 포커스를 짚어봤다.

● 실험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큰 틀은 짚 필요가 없다. 선수단 구성도 오직 해외파에 국한된 반쪽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신 감독은 이번에도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다. 러시아전에서 대표팀은 변형 스리백을 가

동했다. 윤석영(27·가시와이)이 대표팀 합류 직전 부상을 당하는 등 전문 풀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벤치에 주어선 선택의 폭은 좁았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이번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러시아전과 포메이션은 동일할 전망이다. 다만 새 얼굴들의 대거 투입은 불가피하다. 송주훈(23·니가타)~임창우(25·알 와흐다)~김기희(28·상하이 선화) 등 수비진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공격 2선에서 윙백으로 내려온 이청용(29·크리스털 팰리스)처럼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맡을 자원들도 있다.

● 화력

대표팀은 창끝이 날카롭지 않았다. 이란~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2연전

에서 빈공에 그쳤다. 특히 1명이 퇴장당한 이란과의 안방대결은 몹시도 실망스러웠다. 우리도 이란과 똑같이 무계중심을 내린 결과였다. 러시아전 양상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0-4로 끌려갔다. 그래도 희망을 불어넣은 순간이 있었다. 후반 막바지 권경원(25·헨진 취안젠)의 만회골과 지동원(26·아우크스부르크)의 추가골이다. 러시아가 느슨해진 틈을 탄 득점이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시선도 있지만 영예와 2골차 패배는 전혀 다르다. 모로코는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예선 5경기를 치른 동안 9득점·무실점이다. 러시아전에서 일찌감치 왜해진 디펜스 라인에 비해 공격 전개는 절반의 합격점을 받은 만큼 대표팀의 공격 퍼포먼스에 시선이 모아진다.

● 뒷문

월드컵 최종예선 여정에서 대표팀은 거의 매 경기 실점을 했다. 뒷문이 흔들리다보니 항상 쫓기는 팀 운영을 했다. 상대보다 플레이어가 많아도 과감히 전진하지 못한 이유였다. 러시아전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허용한 4골도 괴로웠지만 이 속에는 자책골 2개가 포함돼 고통은 2배였다. 모로코전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지역예선에서 높은 골 집중력을 과시한 상대를 확실하게 봉쇄할 필요가 있다. 아주 작은 실수가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는 법이다. 유럽 원정에 오르기 전, 신 감독은 "결과도 중요하나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뛰는 플레이를 하겠다"고 했다. 약삭같이 물고 늘어지는 투혼을 강조한 대목이다. 태극전사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남정현 기자

히딩크 지우기와 신태용 칠하기



취재파일

최현길 전자기사
choing2@donga.com

2002년 한일월드컵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거스 히딩크 한국대표팀 감독의 탁월한 상황인식 능력이었다.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감독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돌아가는 판을 정확히 읽어냈다.

더 놀라운 건 대처법이었다. 구성원들이 끔찍 못할 정도로 딱 맞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선후배간 서열이 엄격한 선수단을 휘어잡기만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그는 홍명보 안정환 등 팀의 중심축들과 밀당을 하면서 분위기를 틀어쥐었다. 한국 특유의 호칭이 경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선 그라운드에서 이름만 부르려 했다. 틀에 박힌 식사문화를 바꿔놓으면서 선수들 간 소통의 길을 텅 댔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만난 히딩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해법을 보면서 또 한번 무릎을 쳤다. 공간적인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에 맞는 언행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한수 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과 국제팀 전한진 팀장이 히딩크를 만난 건 히딩크 역할론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다. 논란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 히딩크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 부회장은 2002년 때 기술위원장으로 히딩크와 호흡을 맞춰 4강 신화에 큰 힘을 보탠 선수 출신 행정가다. 전 팀장 또한 히딩크의 통역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히딩크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축구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이다.

그런데 만남 장소가 당초 알려진 러시아 모스크바가 아니라 프랑스 칸이었다. 이는 히딩크가 대표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고 본다. 평가전이 열리는 모스크바에서 회

동하면 아무래도 선수단에 민폐가 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관심이 집중됐던 역할론에 대해서도 히딩크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축구협회가 대표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한 것에 대해 "러시아 월드컵 기간 다른 일(방송해설)을 맡기로 한 것이 있어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감독 불가'에 뼈기를 박은 것이다. 대신 비공식적으로는 돕겠다고 했다. 히딩크는 어떤 형태로든 대표팀과 역이는 게 불편했을 수도 있다. 대표팀 내 포지션을 갖게 되면 자칫 욕망이 될 수 있고, 또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쏠릴 수 있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아울러 역할은 곧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떨쳐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감한 문제였던 한국 감독을 맡고 싶다는 의사 진의여부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자신이 발언할 경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히딩크가 축구협회와 업무공유를 위해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대리인

을 통한 논의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직접 채널을 가동해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의 논란은 한국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히딩크의 마음이 여러 군데에서 읽힌다. 이제 공은 신태용 감독에게 넘어왔다. 역할이 정리된 만큼 히딩크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걸 고민하길 바란다. 자신이 선보일 축구 색깔이 중요하겠다는 의미다. 선수 선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며, 어떤 전술로 러시아 무대에 나설지 구상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

10월 7일 열린 러시아와 평가전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대표팀 선수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런 걸 바로 잡아나가는 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다.

평가전이라는 건 크케는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공간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감독의 전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은 감독과 선수들 하기 나름이다.